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❷ 영주 부석사 범종각 목어



▶ 한줄 요약
범종, 법고, 운판, 목어, 그 넷을 일러 '불전사물(佛殿四物)'이라 부른다. 불전사물의 소리에는 지극한 예경이 배어있다.

비움에서 들려오는 부처님 소리

불전사물, 한국불교 독특한 문화

범종, 법고, 운판, 목어, 그 넷을 일러 '불전사물(佛殿四物)'이라 부른다. 불전사물은 사찰건축의 하나인 범종루, 또는 범종각에 배치한 네 가지 타악기를 이르는 말이다. 범종과 운판은 청동으로 만든 금속악기이고, 법고와 목어는 나무로 만든 타악기다. 금속악기의 음은 맑은 고음을 내고, 목조 타악기는 투박한 저음을 낸다.

불전사물은 통상 한 전각 안에 모두 매달려 있다. 생김 하나하나가 기존 악기 관념과는 거리가 멀다. 낯선 사람에게서 범종루는 마치 입체조형으로 구성한 설치예술의 전시장 같은 느낌을 준다. 묵직하고, 투박하며, 고요함 속에서 그 형세들은 하나같이 의문을 갖게 하고 그로테스크하다. 범종루에서 연주되는 소리는 파격적이다. 연주자는 악기를 때려 부술 기세로 온 몸으로, 때론 춤을 추듯 우아하게, 때론 고요하게 연주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연주한다'는 말은 뭔가 어색하다. 온 몸을 던지고, 우아하게 강약으로 때리고, 속을 휘젓고, 무심히 두드린다. 심지어 커다란 법고 앞에선 서너 명의 스님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리듬을 이어가며 북을 두드린다. 일찍이 그런 연주는 경험한 적이 없다.

악기를 치고 두드리는 스님들의 모습은 사자처럼 용맹스럽고, 학처럼 우아하고, 선승처럼 고요하다. 법을 짓고 펼치는 동작이 스며있다. 타악 동작은 무용에 가깝다. 스님의 무용 몸짓을 '작법(作法)'이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짓으로 만들어 펼치기 때문이다. 타악의 연주 역시 작법의 형식 연장선에 있다. 연주자의 작법으로 펼쳐지는 소리는 웅장하고, 장중하며, 단성률처럼 단순하며, 투박하다. 마치 오랜 침묵 속에 응축해 온 가공되지 않은 '성(聲)'이 사자후처럼 미어터져 나오는 형세다. 예불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이러한 사물 타악기 연주는 어느 나라 불교문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한국불교의 독특한 문화다. 오랜 역사를 통해 유전자처럼 전승해 온 한국인 특유의 가무와 미의식이 깊숙이 스며 있다.

불전사물의 소리는 법음

불전사물 소리들은 예사롭지 않다. 소리에 지극한 예경이 배어있다. 연주자들은 통상 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이다. 승가대학 역시 일반 대학에 해당하는 4년 학제이다. 치문반, 사집반, 사교반, 대교반으로 편제한다. 대체로 범종루에 오르는 스님은 2년차 사집반 이상이다. 종루에 올라 연주할 때는 가사장삼을 갖추고 극진히 예경한다. 법당에서의 예불차림과 같다. 왜 그럴까? 불전사물의 소리는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의미한다. 법음을 제 각각의 소리로 우주공간에 퍼트린다. 범종 소리는 법계우주의 중생에게 퍼트리는 일승원음의 법음을 상징한다. 새벽엔 수직적 불교세계관을 아우르는 28천의 모든 중생 구제를 위한 뜻으로 28회 타종하고, 저녁엔 중앙과 사방팔방의 수평세계를 아우르기 위해 33회 타종한다. 소가죽과 나무로 만든 법고는 축생을, 운판은 날짐승을, 목어는 수중생명들을 제도하기 위한 법음의 악기다. 불전사물의 소리를 통해 만유의 생명에게 자비와 진리를 퍼트린다. 연희 성격의 예술 공연 차원을 넘어선다. 정해진 형식과 절제된 규범, 예경의 옷차림은 의례를 더욱 장중하게 하고 거룩하게 연출한다. 울림은 산사의 적막에서 나와 세상의 고요 속에 깃든다. 심장에 파장을 놓는 듯한 두드림의 소리에 세상과 생명은 정화되고 청정해진다.

물고기형 목어, 용두어신형 목어

목어는 나무로 조각한 물고기 형상의 타악기다. 1~2m 길이의 통나무를 물고기 모습으로 조각한 후 배 부분의 속을 파낸다. 탐욕과 집착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다. 그렇게 욕심을 비워낸 울림통은 맑은 소리를 품어낸다. 목어의 물고기 모습은 나무 생김대로 형상화한다. 나무 굴곡 그대로 자연스레 등이 휘기도 하고, 홀쭉하기도 하고, 풍만하기도 하다. 진주 청곡사 목어처럼 배 부분이 유난히 볼록한 우스꽝스런 모습을 하기도 한다.

불전사물, 한국불교 독특한 문화
용주사 목어(1709년)가 현존 最古
목어 타주 방법은 예불마다 달라

불교조형에서 물고기는 초현실주의 경향으로 진화하는 특성이 있다. 용으로 질적 변화하는 어변성룡의 모습이 나타난다. 단순한 물고기 형상에서 이상적인 특성을 두루 갖춘 용으로 변신한다. 그에 따라 목어 조형은 크게 세 가지 모습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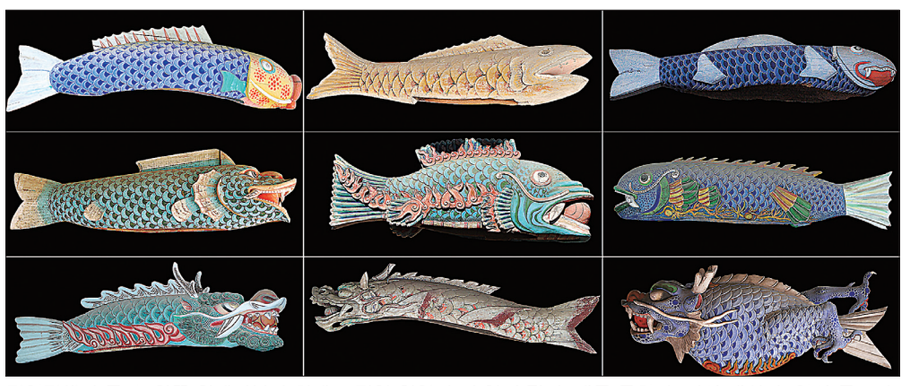
첫째, 물고기형 목어는 잉어 형상이고 대체로 북어처럼 메마른 형상이다. 김천 청암사 목어, 순천 송광사 목어, 대구 동화사 목어, 영천 은해사 목어, 장흥 보림사 목어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진화형 목어는 물고기에서 용두어신으로 진화하는 중간형 목어이다. 물고기 몸에 용의 특성을 조금씩 더했다. 용의 귀나 뿔은 없지만 입이나 콧등, 몸통 등에 용의 모티프인 보주를 표현한다. 예산 수덕사 목어, 양산 통도사 목어, 공주 마곡사 목어 등에서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다.

셋째, 용두어신형 목어는 몸통은 물고기이고 얼굴은 용의 형상을 한 목어이다. 보주를 입에 물고 있고, 용의 귀와 뿔을 가진다. 어변성룡의 질적 변화는 물고기가 여의보주를 갖춤으로써 가능하다. 보주는 물고기에서 어변성룡으로 이행하는 원천이자 깨달음의 상징이다. 그때 물고기는 잠자는 시간마저 아껴가며 깨달음에 용맹정진하는 수행자의 이미지와 겹친다. 용두어신형 목어는 안동 봉정사, 파주 보광사, 진주 청곡사 목어를 비롯해서 해인사, 범어사, 대흥사, 불국사 등에서 두루 볼 수 있다.



영주 부석사 범종각의 목어



각양각색의 목어. 왼쪽 위에서부터 차례로 김천 청암사, 순천 송광사, 대구 동화사, 서산 개심사, 양산 통도사, 공주 마곡사, 안동 봉정사, 파주 보광사, 진주 청곡사 목어. 위 칸은 물고기형 목어, 중간은 진화형 목어, 아래 칸은 용두어신형 목어.

부석사 가람배치와 결합한 목어의 무한무대

목어는 조각가의 개성만큼이나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어느 것도 같은 것이 없다. 목어 대다수는 야외에 메달아 둔 목조각 특성에 의해 시대가 오래된 것이 드물다. 1616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울진 불영사 목어가 기록상 가장 오래된 것이지만 지금은 도난당해 볼 수 없다. 현재로선 1709년 제작연도가 밝혀진 수원 용주사 목어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의 그 많은 목어 중에서 조형미가 뛰어난 몇몇을 손꼽을 수 있다. 영주 부석사 목어, 파주 보광사 목어, 양산 통도사 목어, 해남 대흥사 목어, 곡성 태안사 목어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 부석사 목어의 조형미가 단연 돋보인다. 조형미의 삼요소로 꼽는 형태, 색채, 문양구성 등에서 두루 탁월하다. 부석사 목어 길이는 1.7m이다.

적당한 살집을 갖춘 몸은 유선형 몸매로 군더더기 없이 매끈하다. 반듯하게 편 몸은 유연하면서도 당당하고 힘이 흐른다. 특히 꼬리와 등줄기 지느러미를 살아있는 감성돔 지느러미처럼 대단히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눈길을 끈다. 지느러미는 활짝 펼쳐 있다. 금방이라도 살아 헤엄쳐 나갈 듯한 생생한 추진력이 느껴진다. 부릅뜬 눈, 입안에 다부지게 콱 물고 있는 여의보주, 몸통에 표현한 금빛 지느러미와 붉은 화염문 등도 부석사 목어에 특별한 위세와 위신력을 부여한다. 목어에 올린 단청색채도 청색과 주홍계열의 보색관계에 의한 한난대비 원리로 따스하면서도 밝고 선명한 색감을 살려냈다. 무엇보다 부석사 특유의 가람배치와 결합하여 목어의 빈 뱃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파장의 확산 범위를 무한대로 펼쳐 둔 점이 깊은 인상을 준다. 법고, 목어의 울림이 소백산 능선을 따라 굽이치며 천지간에 울려 퍼지는 심리적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사물 순서와 목어 타주하는 음악 원리

목어를 타주하는 방법은 색다르다. 속을 파낸 배의 양 측면을 채로 교대로 쳐서 소리를 낸다. 소리는 둔탁하고 투박하다. 목어는 불전사물의 타주 과정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친다. 통도사와 범어사는 두 번째에, 해인사와 송광사는 세 번째에 친다. 사물 치는 순서가 절 따라 다르고, 새벽예불, 저녁예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통도사, 범어사, 부석사: (새벽예불) 운판-목어-법고-범종, (저녁예불) 법고-목어-운판-범종 △해인사, 송광사: (새벽예불), (저녁예불) 법고-범종-목어-운판 순서로 동일.

통도사와 범어사, 부석사에선 예불 시각에 따라 운판과 목어 타주 순서가 바뀐다. 오행의 원리에 따른 산물이다. 오행에서 목어는 목(木)으로 동쪽이고, 운판은 금(金)으로 서쪽에 해당한다. 새벽은 서쪽 어둠에서 동쪽 밝음으로 이행하므로 운판-목어 순서로 친다. 저녁은 거꾸로 밝음에서 어둠으로 옮겨가는 시간이므로 목어-운판 순서로 한다.

목어를 타주하는 방법도 절마다, 예불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통도사의 새벽예불 때는 꼬리에서 시작하여 머리로 향하고, 저녁예불 때는 머리에서 시작하여 꼬리로 향한다. 범어사에선 반대 순서로 타주한다. 그럼에도 목어를 타주하는 리듬 원리는 유사하다. 낮은 음-높은 음-낮은 음-높은 음 순서로 음의 높낮이를 파도처럼 변주한다. 음의 빠르기도 머리-몸통-꼬리 부분마다 타주 속도를 달리한다. 목어의 몸 부위에 따라 '탁, 탁, 탁, 탁, 타다다다다다탁, 탁, 탁, 탁, 탁' 형식을 반복한다. 진양조에서 휘몰이로 단숨에 내달리다 극적으로 멈춘다. 머리와 꼬리 부분에선 스타카토 형식으로 한 음씩 짧게 끊어 치고, 몸통에선 빠르게 연속해서 친다. 음 높이와 빠르기에서 리듬을 살려낸다. 짧은 한 마디 안에서 리듬이 무궁무진하게 변한다. 경이로운 변주다.

부석사 저녁예불에선 법고-목어-운판-범종의 순서로 사물을 친다. 범종각에서 미어터진 소리 동심원 파장을 놓을 때 서역 만리로 붉은 노을 뻗치고, 소백산 비로봉, 연화봉, 도솔봉들은 아스라이 내달려 으스름에 잠긴다. 목어 한 마리 탁, 탁, 타다다다탁, 탁, 탁... 제 텅빈 소리를 자내증으로 내놓으며 저녁노을에 고요히 스며든다. 사람도 제 속을 비우면 영혼에 한 마리 목어가 들어와 산처럼 울어 댈 것이다.

〈사진작가〉

장엄하고 은은한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감돌고 휘돌아 불자들의 심금을 울려야 할 깊고 심오한 염불소리! 가 지방 업자들의 단순 시공으로 이장 마이크시설 수준이 되어 염불 스트레스와 성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서울 토박이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의 최고 시설로 나머 염불인생이 편하기 그지 없어 보물이 따로 없습니다.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특징 : 중국제 아닌 국산)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공희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